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픈 바람은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다. 멀리계시거나 타주에 계신부모님들이 몇년씩이고 꾸준하게 자녀교육문제로 전화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특히 청소년기가 되어서 부모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자녀의 공부이든지 정서적, 정신적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성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럴때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것은 첫번째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신이 결정한 접근의 방식을 통해 얻어질수있는 결과를 꼭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 두가지가 결합된 접근시도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성에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즉, 자녀가 문제를 은폐시키게 되거나 자녀의 태도가 불순하고 난폭해지거나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버려버리거나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자문과 도움을 전문가에게 구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웃집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누가누가 이렇게 했다러라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결국은 이렇게 두가지가 결합된 시도로 인한 관계성이 망가질때로 망가진 상태로 와서 도움을 청할때는 정말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우리가 병원에 갈때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증상을 가지고 가면 약복용정도로 끝날수 있어서 큰병을 예방할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가르고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수있는것처럼 아이들의 지도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잘하고 있을때, 즉 문제가 없을때 그때부터 전문가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미리미리 자녀들과의 바람직한 대화나 관계들을 든든히 만들어놓는 경우들이다. 웨체스터의 한부모님은 지난 3,4 년전부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이럴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늘 진지하고 조심스레 물으시며 결국 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이제는 돌보는 두조카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직전엔 꼭 전화를 하시면서 조언을 받으셨다. 자녀때와는 달리 한국에서온 조카와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종종 흘리시며 마음아파하시던 그분은 며칠전 내게 “전도사님, 이제야 그 아이와 내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내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되니 비로소 그아이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것같은 저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날이 있을수 있게 된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전화를 하셨다. 이런 과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오금이 저리는것같다. 이유는 정말 내가 한것이라고는 우리모든 부모님들이 하실수있는 큰 실수인 감정적인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 즉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수있는 정확한 상황분석과 이성적이고 합리적 접근방식을 객관적 입장에 있는 내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뿐인것이다. 감정적인 접근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주관적인데 반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은 훨씬 안정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는것이다. 요즘의 아이들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관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나갈수 있을것이다.